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재 경⁺

(창신대학교)

이 대 혁⁺⁺

(순천향대학교)

이 은 정

(중앙대학교)

장 혜 립

(서울장신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2,081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주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 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가 여성가구주 집단보다는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비노인가구주 집단보다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저소득층, 물질적 어려움, 식품 불안정, 신용불량, 자살생각, 남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 본 연구는 창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토론 및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고수해 오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29.1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5명의 2.5배에 달하고 있다(김정수·송인한, 2013; 통계청, 2013). 개인적 수준에서부터 사회구조적 수준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자살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지닌 특성(예를 들어,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인간관계 등)에 주목하고 있고(강은정, 2005; 김정진, 2009; 정나라 외, 2010), 최근에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만이 자살과 관련하여 경제적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우혜경·조영태, 2013; 백인립·김홍주, 2014; 이운정·송인한, 2015).

정부가 2004년도에 발표한 자살예방대책 5개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범위가 정신보건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살문제를 개인의 정신병리적 차원으로 우선 접근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 이후 자살률의 고공행진을 이어온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살률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은 여러 사회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공식 빈곤율은 2001년 6.5%에서 2013년 1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역시 1993년 0.28에서 2013년 0.34로 증가했다(통계청, 2014; OECD, 2014).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을 고려하면(엄태완, 2008; Kim et al., 2016), 한국 사회에서 빈곤률과 자살률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우혜경·조영태, 2013).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자살 생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 사회는 빈곤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족의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빈곤하지 않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뚜렷이 나타나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속에서 단순히 소득을 기반으로 측정된 빈곤 여부로 개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을 하게 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자살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우혜경·조영태, 2013; 백인립·김홍주, 2014)과 부채(이운정·송인한, 2015) 외에 경제적 요인과 자살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측정보다는 물질적 어려움(material hardship)이란 개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여 자살생각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물질적 어려움은 개인이 일상의 삶에서 매우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Beverly, 2001). 이미 많은 연구들이 소득 기반 빈곤과 물질적 어려움 사이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단차원적 접

근은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Mayer and Jencks, 1989; Sullivan et al., 2008). 이는 현재의 소득 말고도 많은 다른 요인들이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연소득을 가진 저소득가구라 할지라도 기타 소득원의 유무나 물질적 자원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상이한 생활수준을 형성할 수 있다(Beverly, 2001). 따라서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은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기존의 접근과 달리 개인이 일상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에 있어서의 부정적 경험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Beverly, 2001; Heflin, 2006; Iceland and Bauman, 2007; Kim et al., 2016). 즉,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이 신체적 건강상태의 악화,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 유발, 대인관계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의 시도 또는 생각을 유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Agnew, 1992; Lester, 2000; Eitle, 2002; Jang and Johnson, 2003),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사이의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네 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네 가지 하위유형은 식품 불안정(food insecurity), 공과금 납부 곤란(difficulty in paying bills), 의료 곤란(medical hardship), 신용불량(credit problems)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유형의 물질적 어려움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기반의 접근보다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포착할 수 있다(Beverly, 2001; Kim et al., 2016). 이에 더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에 있어서 중요한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김민영, 2013; Chen et al., 2012)을 토대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남녀 집단 또는 노인과 비노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한국복지패널 7~9차 자료를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여부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은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세부 유형별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는 남녀 집단 또는 노인과 비노인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이 자살생각을 하는가? 적어도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선,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개인의 사회구조적 환경이 사람들의 정서, 믿음, 그리고 행동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Conger and Donnellan,

2007).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이재경·이래혁, 2016; Miech et al., 1999; Kuruville and Jacob, 2007; Kim et al., 2016).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은 우울이나 스트레스 같이 자살 관련 행위의 매개가 되는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든(Bagley, 1991; Taylor et al., 2005),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서 자살 관련 행위 그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든 자살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음은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경제적 긴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울, 분노, 실망, 걱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위협에 처하거나(Agnew, 1992; Jang and Johnson, 2003), 약물남용, 일탈,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Agnew, 1992; Lester, 2000; Eitle, 2002). 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이 경제적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Agnew, 1992). 첫째, 경제적 목표의 장애(economic goal blockage)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획한 경제적 목표와 실제 상황의 괴리감을 유발하고 이것이 긴장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상실(economic loss)이다. 실직이나 금전적 손실, 복지 급여의 손실과 같은 경험이 경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유해한 자극(economic noxious stimuli)이다. 예를 들면,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신용불량과 같은 상황이 경제적 긴장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제적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은 저소득층의 정서나 행동에 악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은 경제적 긴장감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됨을 가정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Agnew, 1992),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경제적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은 자살 관련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질적 어려움을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기 전에 하나의 단일한 변수로 자살생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국내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어려움과 유사한 경제적 측면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과 자살과의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소득수준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이 지속되는 집단이 빈곤층에서의 탈출과 진입이 원활한 집단보다 자살생

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우혜경·조영태, 2013). 뿐만 아니라 소득자체가 차단되는 실업 상황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취업상황에서보다 자살생각과 관련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경·정혜선, 2014). 이와 같이 낮은 소득으로 빈곤한 삶이 지속되거나 실업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어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장기적인 개인부채, 사채와 카드 빚이 있는 집단에서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살생각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정·송인환, 2015).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측면의 요인을 거시적 차원의 변수로 분석한 연구(백인립·김흥주, 2014)에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복지투자 비용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적 측면과 자살과의 관계를 메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국외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을수록,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실업상태에 빠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ck, 2000; Chen et al.,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소득수준, 실업, 부채, 지역경제자립도, 복지투자 비용,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의 악화가 자살생각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 역시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2) 물질적 어려움의 세부유형과 자살생각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의 세부유형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그 유형별로 유발되는 심리적 긴장감 또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어려움의 세부유형별로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의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식품 불안정, 공과금 납부 곤란, 의료 곤란, 신용불량을 사용한다. 식품 불안정은 충분하고 안전한 음식을 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기량 외, 2008). 신용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어 내는 개인의 능력”(김중호, 2014: 38)으로 신용불량자는 신용이라는 가치를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신용불량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빌려 쓴 차입금을 반환하지 못한 부채에 따른 결과이다.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유형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하므로 자살을 정신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영역으로 해석하고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과 물질적 어려움의 관계를 토대로 물질적 어려움의 세부유형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련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유형 중 식사를 거른 경험,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의료불안정이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6). 또한 물질적 어려움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 유형 중 통신기기 단절과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만이 우울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flin and Iceland, 2009).

이상의 연구를 통해 물질적 어려움은 세부유형별로 우울과 상이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자살이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지표임을 고려하면(강상경, 2010),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도 물질적 어려움의 세부유형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유형 별로 자살생각과 상이한 관계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은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남녀 집단 또는 노인과 비노인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함산성 외 2009; 강상경, 2010; 김민영 외, 2011; 구춘영 외, 2014; Neumayer, 2003; Minou and Rodriquez, 2008),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신상수·신영전, 2014; 엄현주·전혜정, 2014; 이현경 외, 2014; 이윤정·송인환, 2015; Stack 2000; Chen et al., 2012; 김민영, 2013)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시도나 자살생각은 높으나 실제 자살률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으나 세계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tack, 2000; Payne, 2008). 관련 국외연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Neumayer, 2003; Minou and Rodriquez, 2008), 경제 침체 시 자살 현상을 분석한 국내연구에서도 남성의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김민영, 2013). 또한 서울시 자치구별 자살률을 성별에 따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지연·김창엽, 2016).

또한 연령 역시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구춘영, 2014; 신상수·신영전, 2014).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감소, 의료비 증가, 직업 상실, 배우자 상실, 사회적 관계 상실 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노인집단의 자살위험은 경기 침체 시에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영, 2013).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성별과 연령은 경제적 불황기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주요한 인구학적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가 남자가구주 집단 또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표본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본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의 가장 최근 3개년도 자료인 7-9차년도 자료(2012-2014년)를 사용하였다.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변수가 각각 지난 1년에 대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보고된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8차와 9차 두 개 년도의 자료가 필요했고,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측정된 통제변수들을 사용하기 위해 7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물질적 어려움이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가구주이다. 최종 분석 표본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7차년도 가구주 자료를 기준으로 8차와 9차년도 자료를 결합한 후, 7차년도 기준 총 7,532개의 표본가구 중 7-9차 3개년도 내내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속한 2,131가구를 선택하였다. 이중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응답하지 않은 50가구를 제외하고 총 2,081가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자살생각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9차년도 자료의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구주 응답자는 자살관련 세 가지 문항(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대하여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을 기준으로 '예/아니오'로 응답하였다. 매우 극소수의 가구주만 자살계획(31명, 1.5%)과 자살시도(10명, 0.5%)에 응답하였고, 이러한 응답자 모두가 자살생각에 응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 물질적 어려움

독립변수인 물질적 어려움은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구주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부족하여 가족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관련된 13개 문항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1)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2)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3) '공과금을 못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 (4)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준 경험', (5) '돈이 없

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경험 여부', (8) '건강보험 미납으로 자격정지 경험 여부', (9)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던 경험', (10)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한 경험', (11)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12) '먹을 것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13)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배가 고프는데 먹지 못한 경험'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위의 13개의 문항을 하나로 합친 연속 척도의 경우 편향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모두 0으로 응답한 경우가 1,485명, 71.4%), 기존 연구(Heflin and Iceland, 2009; Kim et al., 2016)에서와 같이 13문항 중 하나라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면 1, 경험하지 않았다면 0으로 구분하여 물질적 어려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적 분류를 시도한 선행연구(이상록, 2011; Heflin and Iceland, 2009; Lee, 2011)를 참고하여 물질적 어려움에 대한 13문항을 식품 불안정(9, 10, 11, 12, 13),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1, 2, 3, 4, 5), 의료 곤란(6, 8), 신용불량(7)의 4개의 하위 이분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경제적 부담과 자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우혜경·조영태, 2013; 백인립·김흥주, 2014; 이현경·정혜선, 2014; 이윤정·송인한, 2015). 8차년도 자료에서 측정된 독립변수가 지난 1년 동안의 물질적 어려움 여부를 묻은 것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는 7차년도 자료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1=남자, 0=여자), 연령, 혼인상태(배우자 없음=1, 있음=0), 교육수준(고등학교 미만=1, 이상=0), 소득대비 욕구 비율(가구 가처분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공식빈곤선으로 나눈 값), 고용상태(비경제활동=1, 경제활동=0), 건강상태(건강하지 않음=1, 건강함=0), 가구점유형태(비자가=1, 자가=0), 동거자녀유무(있음=1, 없음=0), 거주지역(광역시미만=1, 광역시이상=0)이다.

3) 자료분석방법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물질적 어려움 유무를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제곱검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2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1과 동일한 모델을 토대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개념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문제 1과 2의 분석을 남녀 집단과 노인/비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하위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65세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주 집단과 비노인가구주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9차년도의 표본분석 종단면 분석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분석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가구주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71.53세(SD±11.25)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65.9%),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수준(82.1%), 비경제활동의 고용상태(67.9%)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육구비율은 평균 1.11점(SD±0.36)이었다. 반면, 건강상태는 건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거주 형태 역시 자가와 비자가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1> 물질적 어려움 여부에 따른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전체 (n=2,081)	물질적 어려움 없음(n=1,485)	물질적 어려움 있음(n=596)	χ^2 / t
성별	여성	1182(56.8)	830(55.9)	352(59.1)	1.740
	남성(1)	899(43.2)	655(44.1)	244(40.9)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709(34.1)	562(37.8)	147(24.7)	32.894***
	배우자 없음(1)	1372(65.9)	923(62.2)	449(75.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상	372(17.9)	240(16.2)	132(22.1)	10.381**
	고등학교 미만(1)	1709(82.1)	1245(83.8)	464(77.9)	
고용상태	경제활동	668(32.1)	518(34.9)	150(25.2)	18.414***
	비경제활동(1)	1413(67.9)	967(65.1)	446(74.8)	
건강상태	건강함	1102(53.0)	824(55.5)	278(46.6)	13.353**
	건강하지 않음(1)	979(47.0)	661(44.5)	318(53.4)	
가구점유형태	자가	947(45.5)	791(53.3)	156(26.2)	125.877***
	비자가(1)	1134(54.5)	694(46.7)	440(73.8)	
동거자녀유무	동거자녀 무	1901(91.4)	1395(93.9)	506(84.9)	43.988***
	동거자녀 유(1)	180(8.6)	90(6.1)	90(15.1)	
거주지역	광역시 이상	775(37.2)	520(35.0)	255(42.8)	10.982**
	광역시 미만(1)	1306(62.8)	965(65.0)	341(57.2)	
자살생각	없음	1857(89.2)	1370(92.3)	487(81.7)	49.231***
	있음(1)	224(10.8)	115(7.7)	109(18.3)	
연령		71.53(11.25)	73.03(10.23)	67.83(12.74)	8.864***
소득대비 육구비율		1.11(0.36)	1.13(.36)	1.06(.37)	4.135***

주. 이분 변수의 경우 빈도(%), 연속 변수의 경우 평균(SD), *p<0.05, **p<.01, ***p<.001

독립변수인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주는 71.4%이었고, 이중 여성이 59.1%,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미만인 경우가 77.9%,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53.4%, 가구점유형태가 비자가인 경우가 73.8%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여부에 따른 연령과 소득대비 욕구비율은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7.83세(SD±12.74)로 낮았고($t=8.864, p<.001$), 소득대비 욕구비율 역시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의 평균점수가 1.06점(SD±.37)으로 낮게 나타났다($t=4.135, p<.001$).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대한 전체 저소득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가구주는 10.8%였다. 물질적 어려움 여부로 살펴보면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주의 경우보다 더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3% 대 7.7%).

2)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래의 결과는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샘플 가중치를 조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형적합도는 양호하였고($-2LL = 1306.942, \chi^2 = 114.605, p<.001$),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은 자살생각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OR = 1.903, 95% CI = 1.403~2.583, $p<.001$). 이러한 결과는 앞선 기술통계 결과에서 확인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사이의 연관성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2>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n=2,081)

	B	SE	OR		95% CI
물질적 어려움	.644	.156	1.903	***	1.403~2.583
통제변수					
성별	.513	.198	1.670	*	1.133~2.461
연령	-.018	.008	.982	*	0.967~0.997
혼인상태	.694	.230	2.001	**	1.276~3.138
교육수준	-.164	.208	.849		0.564~1.277
소득대비 욕구비율	.001	.206	1.001		0.668~1.500
고용상태	.017	.176	1.017		0.720~1.437
건강상태	.811	.156	2.249	***	1.656~3.056
가구점유형태	.564	.173	1.758	**	1.253~2.466
동거자녀	-.239	.272	.788		0.462~1.343

	B	SE	OR	95% CI
거주지역	.119	.156	1.127	0.830~1.531
상수항	-2.509	.671	.081	***
χ^2		114.605(df=11)***		
-2LL		1306.942		
Nagelkerke R ²		0.108		

주. B =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3)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변수와 자살생각의 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연구문제1의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물질적 어려움의 4개의 하위개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모형적합도는 양호하였고(-2LL = 1300.283, χ^2 = 121.264, p<.001),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변수 중 식품 불안정과 신용불량이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원이 식품 불안정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1.4배 높게 나타났다(OR = 1.436, 95% CI = 1.027~2.008, p<.05). 또한 가구원이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2.2배 높게 나타났다(OR = 2.235, 95% CI = 1.410~3.544, p<.01).

<표 3>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n=2,081)

	B	SE	OR	95% CI
물질적 어려움				
식품 불안정	.362	.171	1.436	* 1.027~2.008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	.219	.242	1.245	0.774~2.003
의료 곤란	.217	.376	1.243	0.595~2.596
신용 불량	.804	.235	2.235	** 1.410~3.544
통계변수				
성별	.480	.200	1.616	* 1.092~2.392
연령	-.016	.008	.984	* 0.969~0.999
혼인상태	.691	.232	1.997	** 1.267~3.146
교육수준	-.112	.211	.894	0.592~1.352
소득대비 욕구비율				
고용상태	.026	.177	1.026	0.726~1.452
건강상태	.793	.157	2.210	*** 1.623~3.008
가구점유형태	.528	.174	1.696	** 1.206~2.385
동거자녀	-.292	.278	.747	0.433~1.287

	B	SE	OR	95% CI
거주지역	.084	.157	1.088	0.800~1.479
상수항	-2.528	.672	.080	
χ^2			121.264(df=14)***	
-2LL			1300.283	
Nagelkerke R ²			0.114	

주. B =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0.05, **p<.01, ***p<.001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남녀 집단 및 노인과 비노인 집단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4>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남녀 및 노인과 비노인의 하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처럼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남성이 거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남성이 거주 집단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2.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2.686, 95% CI = 1.65~4.36, p<.001). 이와 달리 여성 거주 집단의 분석결과,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남성과 여성 거주, 노인과 비노인 거주 집단의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n=2,081)

	남자가구주(n=899)				여자가구주(n=1,182)				노인가구주(n=1,662)				비노인가구주(n=419)			
	B	SE	OR	95% CI	B	SE	OR	95% CI	B	SE	OR	95% CI	B	SE	OR	95% CI
물질적 어려움	.988	.247	2.686	***1.65~4.36	.362	.206	1.436	0.96~2.15	.635	.191	1.886	**1.30~2.74	.558	.283	1.748	*1.00~3.04
통계변수																
성별	-	-	-	-	-	-	-	-	1.084	.256	2.955	***1.79~4.88	-.295	.310	.745	0.41~1.37
연령	.002	.011	1.002	0.98~1.02	-.037	.011	.964	**0.94~0.98	-	-	-	-	-	-	-	-
혼인상태	.893	.260	2.444	**1.47~4.07	.511	.625	1.667	0.49~5.67	1.132	.285	3.103	***1.78~5.42	.360	.418	1.434	0.63~3.25
교육수준	-.122	.266	.885	0.53~1.49	-.148	.338	.863	0.45~1.67	.027	.301	1.028	**0.57~1.86	-.341	.290	.711	0.40~1.26
소득대비 교육비용	.259	.329	1.295	0.68~2.47	-.287	.285	.751	0.43~1.31	-.187	.268	.830	0.49~1.40	.153	.356	1.165	0.58~2.34
고용상태	.122	.263	1.130	0.67~1.89	-.025	.240	.975	0.61~1.56	-.172	.218	.842	0.55~1.29	.189	.308	1.208	0.66~2.21
건강상태	.858	.234	2.358	***1.49~3.73	.800	.211	2.226	***1.47~3.37	.583	.186	1.792	1.25~2.58	1.416	.302	4.119	***2.28~7.45
가구점유형태	.305	.259	1.356	0.82~2.26	.769	.244	2.159	**1.34~3.48	.377	.197	1.458	0.99~2.15	1.287	.427	3.622	**1.57~8.36
동거자녀	-.096	.419	.908	0.40~2.06	-.435	.374	.647	0.31~1.35	-.346	.537	.707	0.25~2.02	-.258	.343	.773	0.40~1.51
거주지역	.212	.251	1.236	0.76~2.02	.084	.204	1.088	0.73~1.62	-.133	.189	.875	0.60~1.27	.647	.283	1.909	*1.10~3.33
상수항	-3.966	.923	.019		-.691	1.001	.501		-3.886	.558	.021		-4.121	.807	.016	
χ^2			69.505(df=10)***				59.925(df=10)***				57.233(df=10)***				59.447(df=10)***	
-2LL			541.349				750.755				936.415				340.333	
Nagelkerke R ²			0.151				0.100				0.075				0.215	

주. B =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05, **p<.01, ***p<.001

	남자가구주(n=899)				여자가구주(n=1,182)				노인가구주(n=1,662)				비노인가구주(n=419)			
	B	SE	OR	95% CI	B	SE	OR	95% CI	B	SE	OR	95% CI	B	SE	OR	95% CI
혼인상태	.879	.269	2.408	** 1.42~4.08	.472	.621	1.603	0.48~5.41	1.071	.290	2.919	*** 1.66~5.15	.393	.422	1.481	0.65~3.39
교육수준	.043	.278	1.044	0.61~1.80	-.166	.339	.847	0.44~1.65	.091	.306	1.096	0.60~2.00	-.331	.294	.718	0.40~1.28
소득대비 교육비용	.109	.334	1.115	0.58~2.15	-.295	.286	.744	0.43~1.30	-.234	.273	.791	0.46~1.35	.094	.355	1.098	0.55~2.20
고용상태	.158	.272	1.171	0.69~1.10	.002	.240	1.002	0.63~1.60	-.129	.218	.879	0.57~1.35	.181	.311	1.199	0.65~2.21
건강상태	.787	.243	2.196	** 1.36~3.54	.818	.212	2.267	*** 1.50~3.43	.563	.187	1.756	** 1.22~2.53	1.449	.309	4.257	*** 2.32~7.81
가구접유 형태	.177	.267	1.193	0.71~2.01	.805	.245	2.236	** 1.39~3.61	.367	.198	1.444	0.98~2.13	1.245	.434	3.472	** 1.48~8.13
동거자녀	-.294	.442	.746	0.31~1.77	-.427	.380	.653	0.31~1.38	-.449	.549	.639	0.22~1.87	-.235	.348	.790	0.40~1.56
거주지역	.137	.256	1.147	0.69~1.90	.090	.205	1.094	0.73~1.64	-.142	.190	.868	0.60~1.26	.598	.286	1.818	* 1.04~3.18
상수항	-3.878	.950	.021		-.392	1.009	.675		-3.804	.564	.022		-4.014	.813	.018	
χ^2	89.608(df=13)***				58.730(df=13)***				60.436(df=13)***				61.053(df=13)***			
-2LL	521.247				751.950				933.212				338.726			
Nagelkerke R ²	0.192				0.098				0.079				0.221			

주. B =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패널자료와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주는 그렇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변수들 중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하는 것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에 의한 하위집단 분석의 결과,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과 자살생각 사이의 정적 관계가 남성가구주 집단이나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한 바와 같이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은 저소득층의 자살생각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저소득층이 일상의 삶에서 겪는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이 그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긴장감으로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의 설명에 부합된다(Agnew, 1992; Conger and Donnellan, 2007).

또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 관계는 자살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이나 부채와 같이 소득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고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우혜경·조영태, 2013; 백인립·김흥주, 2014; 이윤정·송인한, 2015)과 큰 맥락에서 일치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하여 생활여건과 직결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방법과 달리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정신건강의 악화나 심리적 압박감의 심화 등 자살생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개인 혹은 가구가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이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사회복지실천적 정책적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하여 식품 불안정과 신용불량의 경험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식품 불안정과 자살생각 사이의 정적관계는 최근 수행된 국외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aviso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식품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생활여건 상의 어려움이 자살생각과 같은 위험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식품 불안정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예를 들면, 스트레스 기제 이론: Stuff et al., 200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재한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저소득층의 신용불량과 자살생각의 정적관계는 생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살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한 것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이운정과 송인환(2015)은 일반 사채와 카드 부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신용불량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채보다 더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 활동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불량은 금융거래나 취업의 제한을 야기하고 이는 시장에서 퇴출, 곧 사회적 고립을 의미한다. 이에 선진국은 신용불량자들에게 공공부조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시장으로의 재진입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공공부조 제도권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자살 및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류정순,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신용불량의 경험과 자살생각의 정적관계는 저소득층에게 있어 신용불량의 경험이 사회적 배제와 고립으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사이의 정적관계가 남성가구주 집단이나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전체 물질적 어려움 지표나 식품 불안정과 신용불량 같은 하위 지표와 자살생각 사이의 정적 관계가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경기 침체 시 남성 집단의 자살률의 더 높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김민영, 2013).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은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Moller-Leimkuhler, 2003).

연령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에서도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 같은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 척도와

자살생각 사이에 정적 관계가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경기 침체 시 노인 집단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김민영, 2013).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감소, 직업 상실, 의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집단에서 경험하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보다 큰 심리적 부담이 되어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tack, 2000). 또한 노인 집단은 역할 상실이나 타인 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 같은 심리적 압박감의 경험은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Joiner, 2005).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을 개인차원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나아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소득 기반의 접근이 아닌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정책적 접근보다 보다 구체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 사이에 시간 차이를 두고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관계의 규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차원에 국한된 기존의 정부 자살예방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자살은 개인과 사회환경 및 구조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백인립과 김홍주(2014)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한국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은 정신보건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자살과 관련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살예방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저소득층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식품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식품 제공 서비스에 더해서 영양 식단 유지나 식품 관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보장은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식품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김혜련 외, 2007; 이계임 외, 2012). 따라서 미국의 노인 대상 농산물 직판장 이용 바우처 제도(USDA, 2015)나 일본의 노인 대상 맞춤형 급식프로그램(김초일 외, 2007)과 같이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남성가구주나 노인 가구주 등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중호, 2014).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제도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변제능력이 있

는 사람과 과도한 채권독촉이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별하여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류정순, 2004).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물질적 어려움의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빈곤 지표를 사용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였지만 응답자의 자기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물질적 어려움은 가구주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배우자 및 다른 가구성원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물질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척도가 갖는 한계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셋째, 가구주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살생각의 발생을 개인 단위로 측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인 단위의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질적 어려움을 0과 1로 이분화하여 측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의 편향으로 연속변수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물질적 어려움을 중복으로 경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당장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긴급지원 혹은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즉,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일시적인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 강은정, 2005, “연령계층별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 『보건복지포럼』, 107: 81-86.
- 구춘영·김정순·유정옥, 2014,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1): 24-32.
- 김기량·김미경·신영전, 2008, “식품 보장의 개념과 측정”, 『예방의학회지』, 41(6): 387-396.
- 김민영·정광호·금현섭, 2011, “경제위기와 자살률 간 탐색적 연구: 15개 시도 성별·연령별 자살률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273-302.
- 김민영, 2013, “한국 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지역사회,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수·송인한, 2013, “자살 예방 국가전략 비교: WHO 프레임워크로 분석한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스코틀랜드·호주 및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보건사회연구』, 33(1): 513-546.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6.

- 김지연·김창엽, 2016, “사회자본과 지역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41: 33-60.
- 김중호, 2014,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법학연구』, 55: 35-68.
- 김초일·이해정·이윤나·이행신·장영애·문재진, 2007, “노인영양개선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체계 (안) 도입 연구”,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형수, 2002,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 159-172.
- 김혜련·곽노성·문현경·백희영·강장미·김어지나·이정원, 2007,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순, 2004, “신용불량 신빈곤층 실태와 대안”, 『아세아연구』, 47(2): 19-60.
- 백인립·김홍주, 2014, “사회적 타살과 사회경제적 의미: 자살에 대한 개인심리적 접근을 넘어 사회구조적 대안을 향하여”, 『비판사회정책』, 44: 326-360.
-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0(3): 629-646.
- 손정남, 2007,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판별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6(3): 267-275.
- 신상수·산영전, 2014,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비판사회정책』, 45: 230-266.
- 엄태완, 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36-66.
- 엄현주·전혜정, 2014, “중년기 남녀의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2): 35-62.
- 우혜경·조영태, 2013, “빈곤의 동태와 자살생각”, 『보건과 사회과학』, 34: 5-35.
- 이계임·황윤재·이동소·가영·이윤나·김기량,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록, 2011,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233-265.
- 이운정·송인한, 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58-82.
- 이재경·이래혁, 2016,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552-565.
- 이현경·정혜선, 2014, “성별 실업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5): 97-107.
- 정나라·김 호·이승묵, 2010, “청년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대상으로”, 『보건학논집』, 47(1): 45-50.
- 통계청, 2013, “2012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4, “2014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Agnew, R., 1992, “Foundations for a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48.
- Bagley C., 1991, “Poverty and suicide among native-Canadians: A replication”, *Psychological Reports*, 69(1): 149-50.
- Bednall, T. C., 2014, “Longitudinal research”, 74-96, in *Research Method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edited by Sanders, K., Cogan, J. A., and Bainbridge, H. T. J. New York:

Routledge.

- Beverly, S. G., 2001, "Measures of material hardship: Rationale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Poverty*, 5(1): 23-41.
- Chen, J., Choi, Y. J., Mori, K., Sawada, Y., and Sugano, S., 2012, "Socio-economic studies on suicide: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6(2): 271-306.
- Conger, R. D., and Donnellan, M. B., 200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75-199.
- Davison, K. M., Marshall-Fabien, G. L., and Tecson, A., 2015, "Association of moderate and severe food insecurity with suicidal ideation in adults: National survey data from three Canadian provinc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0(6): 963-972.
- Durkheim, E., 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Eitle, D. J., 2002, "Exploring a source of deviance-producing strain for female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429-442.
- Heflin, C. M., 2006, "Dynamics of material hardship in the women's employment study", *Social Service Review*, 80(3): 377-397.
- Heflin, C. M., and Iceland, J., 2009, "Poverty, material hardship, and depression", *Social Science Quarterly*, 90(5): 1051-1071.
- Huang, W., 1996, "Religion, culture, economic and sociological correlates of suicide rates: A cross-national analysis", *Applied Economics Letters*, 3: 779-782.
- Iceland, J., and Bauman, K. J., 2007, "Income poverty and material hardship: How strong is the associa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6(3): 376-396.
- Jang, S. J., and Johnson, B. R., 2003,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deviant coping among African Americans: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 79-105.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J. S., Joyce, S., and Lee, R. H., 2016, "Material hardship and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Differences by household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5(2): 187-198.
- Kuruvilla, A., and Jacob, K. S., 2007, "Poverty,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26(4): 273-278.
- Lee, S. R., 2011, "Material hardship of the poor families in Korea: The distributions and determinants of material hardship",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3): 233-265.
- Lester, D., 2000, *Why people kill themselves*, Springfield, OH: Charles C. Thomas.
- Mayer, S. E., and Jencks, C., 1989, "Poverty and the distribution of material hardship", *Journal of Human Resources*, 24(1): 88-113.
- Miech, R. A., Caspi, A., Moffitt, T. E., Wright, B. E., and Silva, P. A., 1999,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disorders: A longitudinal study of selection and causation during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4): 1096-1131.
- Minoiu, C., and Rodriguez, A., 2008, "The effect of public spending on suicide: Evidence from U.S. state 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 237-261.
- Moller-Leimkuhler, A. M., 2003, "The gender gap in suicide and premature death or: Why are men

- so vulnerabl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3(1): 1-8.
- Neumayer, E., 2003, "Are socioeconomic factors valid determinants of suicide? Controlling for national cultures of suicide with fixed-effects estimation", *Cross-Cultural Research*, 37(3): 307-329.
- OECD, 201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 Payne, S., Swami, V., and Stanistreet, D., 2008,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its influence on suici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en's Health*, 5(1): 23-35.
- Rodriguez, A., 2006, *Inequality and suicide mortality: A cross-country study*, La Paz, Bolivia: Institute for Advanced Development Studies.
- Stack, S.,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45-162.
- Stuff, J. E., Casey, P. H., Szeto, K. L., Gossett, J. M., Robbins, J. M., Simpson, P. M., Connell, C., and Bogle, M. L., 2004, "Household food insecurity is associated with adult health status", *Journal of Nutrition*, 134(9): 2330 - 2335.
- Sullivan, J. X., Turner, L., and Danziger,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material hardship",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7(1): 63-81.
- Taylor, R. A., Page, S., Morrell, J., and Harrison, C. G., 2005, "Mental health and socio-economic variations in Australian suicide", *Social Science & Medicine*, 61(7): 1551-1559.
- USDA, 2015,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http://www.fns.usda.gov/sfmnp/overview>.

Abstract

Suicidal Idea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Material Hardship -

Lee, Jae Kyoung
(Changshin University)

Lee, Rae Hyuck
(Soonchunhyang University)

Lee, Eun Joung
(Chung-Ang University)

Chang, Hae Lim
(Seoul Jangsin University)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ree recent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Overall, we found that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having suicidal ideation. We also found that, among individual items of material hardship, experiencing food insecurity or credit problem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having suicidal ideation.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association of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with having suicidal ideation was more pronounced for male-headed or elderly-headed household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living condi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and reduce their suicide-related behavior were discussed.

Key words: low-income households, material hardship, food insecurity, credit problems, suicidal ideation, male-headed households, elderly-headed households

[논문 접수일 : 16. 07. 21, 심사일 : 16. 08. 04, 게재 확정일 : 16. 08. 16]